

1-3세기의 박해: 역사적 사실과 교훈

Persecution in First to Third Centuries:
Historical Facts and Implications

배정훈

고신대(신학과 교수)

목차

1. 들어가면서 | 191
2. 기독교 박해 | 192
 - 2.1. 유대교로부터의 박해 | 192
 - 2.2.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박해 | 195
 - 2.2.1. 박해의 원인 | 195
 - 2.2.2. 네로 시대: 64년, 로마 | 200
 - 2.2.3. 도미티안 시대: 96년, 로마와 소아시아 | 203
 - 2.2.4. 플리니와 트라야니 주고 받은 서신:
111년, 소아시아 (비티니아) | 204
 - 2.2.5.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c. 107-110년, 안디옥
| 207
 - 2.2.6. 서머나의 폴리갑: c. 155, 서머나 | 210
 - 2.2.7.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시대: 2세기 중·말
| 212
 - 2.2.8. 2세기 말-3세기 중반 | 213
3. 나오면서 | 215



요의

1-3세기의 박해: 역사적 사실과 교훈

3세기 이전 초기기독교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이단의 활동과 더불어 중요한 외부적인 요소는 박해이다. 기독교는 형성초기부터 박해를 피할 수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250년 이전까지의 기독교 박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한된 지면에 모든 사건을 상세하게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건들과 인물들을 중심으로 초대 기독교의 박해 이야기를 서술할 것이다. 이 논문은 250년까지의 기독교 박해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주된 원인이 있다는 보다는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들, 특별히 제국의 폭력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었음을 보여 줄 것이다. 본 작업이 주는 실천적인 교훈은 기독교는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그 자체의 내적인 타락에 의해 무너진다는 것이다. 물론 박해와 잘못된 오해 등에 정당하게 대응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더 많은 노력을 기독교 자체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기울어야 할 것이다.

Persecution in First to Third Centuries: Historical Facts and Implications

주요어

초대 기독교, 로마, 박해, 순교, 기독교의 승리

Abstract

Persecution in First to Third Centuries: Historical Facts and Implications

Prof. Dr. Jung-hun Bae

The external factor of persecution towards Christian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early Christianity before third century as well as heresies. Christianity cannot avoid persecution from its beginning. This paper seeks to investigate the history of Christianity persecution before 250 C.E. and its implications. As it is almost impossible to deal with the whole history in detail due to limited pages, we attempt to construct the story of persecution, focusing on vital events and figures. This article will demonstrate that this persecution was carried mainly about by a wide arrange of external elements, especially the violence of the Empire, rather than early Christians in themselves. It will give an important practical lesson that it seems that the internal corruption of the church results in the collapse of Christianity, not persecution from outside. We need to properly respond to persecution and misunderstanding surrounding Christians, but we have to work harder to keep Christian identity.

Keywords | Early Church, Rome, Persecution, Martyrdom, Victory of Christianity

1. 들어가면서

3세기 이전 초기기독교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이단의 활동과 더불어 중요한 외부적인 요소는 박해이다.¹⁾ 기독교는 형성초기부터 박해를 피할 수 없었다. 초대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주요 세력들은 유대교와 로마제국이다. 유대교인들의 핍박도 극렬했지만 로마정부의 지도자들로 인한 고통은 훨씬 더 컸다. 기독교의 형성초기부터 시작된 박해는 중단된 때도 있었지만 313년(동방은 323년까지)까지 지속되었다. 수 백 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모진 박해와 핍박을 견뎌야 했다. 박해시기는 250년 데시우스(Decius, 250-51, C.E.)황제를

1) 바우어(Walter Bauer)와 그의 논제를 따르는 학자들은 기존의 정통-이단 간의 구분을 비판하면서 초대교회는 다양한 기독교 집단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했다. 마르시온주의, 영지주의, 몬타니즘과 같은 집단들은 이단이 아니라 기독교였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초기의 주도권 싸움에서 원시 정통교회(proto-orthodoxy)가 승리하였고 그 후에 기독교는 확립되었다고 지적한다. 교회가 초기의 다양성과 역동성이 상실한 채 교조주의화 되었다고 주장한다. 바우어의 논제를 페이지얼스(Elaine Pagels)와 어만(Bart D. Ehrman)이 대중화시켰다. Walter Bauer, *Orthodoxy and Heresy in Earliest Christianity*, trans. Robert A. Kraft and Gerhard Krodel, suppl. Georg Strecker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Elaine Pagels, *The Gnostic Gospels*, 하연희 역, 『영지주의: 숨겨진 복음서』 (서울: 루비박스, 2006); ead., *Beyond Belief: The Secret Gospel of Thomas*, 권영주 역, 『믿음을 넘어서: 도마의 비밀 복음서』 (서울: 루비박스, 2006); Bart D. Ehrman, *Lost Christianities: The Battle for Scripture and the Faiths We Never Know*, 박철현 역 『잃어버린 기독교의 비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성경과 교리를 둘러싼 숨 막히는 전투』 (서울: 이제, 2008). 최근에 쾨스텐베르그(Andreas J. Köstenberger)와 크루겔(Michael J. Kruger)은 바우어 논제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들의 해석은 현대 상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초기교회의 형태를 오해했다고 주장한다. 교회는 초기부터 이단과 정통의 구분이 분명하였다는 것이다. Andreas J. Köstenberger and Michael J. Kruger, *The Heresy of Orthodoxy: How Contemporary Culture's Fascination with Diversity Has Reshaped Our Understanding of Early Christianity* (Wheaton: Crossway, 2010). 초대교회 이단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Alister E. McGrath, *Heresy: A History of Defending the Truth*, 홍병룡 역, 『그들은 어떻게 이단이 되었는가: 교회가 신앙을 지켜온 치열한 역사』 (서울: 포이에마, 2011).

기점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250년 이전까지의 기독교 박해는 간헐적이고 부분적이었다면 이후에는 좀 더 지속적이고 제국 전체에 걸쳐서 조직적으로 발생했다.²⁾

본 논문에서는 250년 이전까지의 기독교 박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한된 지면에 모든 사건을 상세하게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건들과 인물들을 중심으로 초대 기독교의 박해 이야기를 서술할 것이다. 먼저 유대교의 박해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난 후 로마제국에 집중하고자 한다.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대처와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2. 기독교 박해

2.1. 유대교로부터의 박해

초기의 박해는 유대교로부터 시작된다. 유대인들의 박해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서 기인했다. 첫째는 기독교의 가르침 때문이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행 4:1-3). 특히 조상의 율법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가졌던 유대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이단으로 간주하였다(24:5). 그들은 사도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도를 전하면서 유대인들을 이단으로 빠트린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쟁점은 기독교인들이 성전을 모독하고 할례와 율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6:8-15; 21:21). 유대교인들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된 이유를 기독교와 같은 이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돌렸다. 단순한

2)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로마 제국 하에서의 기독교』 (서울: SFC, 2016), 350, 363.

시기심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부추겼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르자 그들을 잡아 옥에 가뒀다(5:12-18).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당으로 몰려 온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의 큰 무리를 보고 유대인들은 시기심을 느꼈다(13:44-45).

사도들은 유대 공회에 의해 심문을 받고 부활한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받았다(행 4:1-22; 5:17-42). 때때로 기독교인들은 거짓고소를 당하기도 했는데 유대 기독교에서는 스테반이 대표적이 예이다.³⁾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스테반이 유대교의 전통을 부정한다는 위증을 하도록 했다. 그로 인해 그는 돌에 맞아 죽었고 이것이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기독교 순교자이다(6:8-7:60).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사심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세 번 태장으로, 돌로 한 번 맞았다고 말한다(고후 11:24-25). 그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 했고(14:19), 그 역시 유대 공회에 의해 고소당하기도 했다(21:17-26:32). 로마는 당시의 유대교의 기독교 핍박을 유대인들 간의 종교문제로 보고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⁴⁾ 피정복민의 종교에 대한 로마의 기본입장은 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종교의 자유를 주는 것이었다. 사도행전 18장 12-1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3) 초기교회의 역사는 예수와 사도들의 사역으로 구분될 수 있고 사도들로 인한 기독교의 확장은 유대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로 나눌 수 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방인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유대 기독교는 기독교 신앙을 유대교 혹은 유대교적 헬레니즘의 도움으로 해석하고 언약과 율법을 통한 유대인의 정체성을 고수한다면 이방 기독교 공동체는 헬레니즘의 철학과 문화, 종교의 용어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였고 이방인들에게 더욱 개방적인 보편종교의 형태를 띠었다. 서원모, “유대교의 한 종파에서 세계종교로: 그리스도교와 헬레니즘의 관계 연구,” 『한국교회사학회지』, 48 (2017): 230.

4) Justo L. Gonzalez, *The Story of Christianity 1: The Early Church to the Dawn of the Reformation*, 2nd ed., 엄성옥 역, 『초대교회사』 (서울: 은성출판사, 2012), 60-61;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63.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 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5)

주후 64년까지 이러한 경향이 주를 이룬 것으로 보이지만 만일 폭동이나 난동으로 인해 사회의 질서가 위협받을 경우 로마는 곧바로 개입하였다. 그 예가 바로 49년경 클라우디우스(Claudius, 41-54, C.E.)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18장 2절에 기록되어 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본문은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해 밝히지는 않지만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Suetonius, 69-c.130, C.E.)는 이에 대해 언급한다. 그는 122년경 줄리어스 시저로부터 열 두 명의 황제들의 생애를 기록했는데(*De Vita Caesarum: Lives of the Twelve Caesars*), 『글라우디우스의 생애』에서 로마의 유대인

5) 사도행전에서 로마의 총독이 바울의 문제를 처리하는 장면은 매우 흥미롭다. 그는 바울에 대한 고소는 유대의 종교문제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려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고소사건을 처리해야 했을 때 로마법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이며 바울은 그에 따라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하기도 했다. 사도행전의 기록시기를 주후 6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중반으로 본다면 이 시기는 로마에 의한 박해가 시작된 때이다. 64년에 로마에서 일어난 박해를 보면 기독교인들은 적절한 재판과정 없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형당했지만 적어도 사도행전에 나타난 로마 정부는 그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로마제국의 대응이 일관성 있는 법 보다는 임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즉 기독교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제국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추방을 간략하게 묘사한다: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Chrestus)의 선동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키므로 그는 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Judaeos impulsore Christo assidue tumultuantes Roma expulit.)⁶⁾

이 기록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크레스투스”(Chrestus) 때문에 생긴 난동으로 인해 로마에서 축출되었다. 학자들은 “크레스투스”의 정체를 놓고 논의를 벌였는데 수에토니우스가 “크리스투스”(Christus), 즉 그리스도를 크레스투스로 잘못 표기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만일 이 주장이 맞다면 최소한 주후 49년경에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문헌적인 증거가 된다. 크레스투스로 인한 혼란이 무엇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유대교인들과 유대 기독교인들 간의 갈등인 것으로 추론된다.⁷⁾ 로마에서의 기독교의 기원은 분명치 않지만 사도행전 2장 10절은 로마로부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로마로 돌아 간 것으로 보인다.⁸⁾

2.2.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박해

2.2.1. 박해의 원인

초대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로부터도 박해를 받았다. 로마의 박해의 유대인들보다 훨씬 기독교의 존립에 위협을 가했다. 린치(Joseph H. Lynch)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것은 예외적이라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이미 언급되었듯이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기 때문에 반역적인 성향이 나 심각한 비도덕적인 행동이 없는 한 모든 종교에 관대한 입장을 취했기

6) Suetonius, Claudius, 254. Loeb Classical Library 53,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282에서 재인용.

7) Gonzalez, 『초대교회사』, 61-62;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282-84.

8)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284-85.

때문이다. 또한 3세기 중반까지 어떤 법도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⁹⁾ 그렇다면 왜 로마의 통치자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을까? 기독교에 대한 이교도인들의 적대감의 원인은 다양하다. 우선적으로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로마정부의 인식의 변화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로마당국은 기독교를 유대교 내의 한 분파로 보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형성된 후 약 30여 년까지는 박해를 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했기에 로마는 황제숭배를 강요하지 않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용하였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황제를 섬기는 대신 그를 위한 기도를 올렸다.¹⁰⁾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로마의 관용을 누렸다.

하지만 많은 이방인들이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고 기독교인들도 점차적으로 유대교인들의 민족적인 운동과 자신들을 차이점을 강조하며 구분하였다. 이로 인해 로마의 지도자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와는 다른 새로운 종교라고 이해하였다. 기독교에 대한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이후의 박해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이룬다. 로마는 유대교인들이 황제와 로마 신 숭배를 거부하는 것이 단지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일 뿐 반역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교적인 행동을 강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독교는 상황이 달랐다. 기독교는 유대교와는 다른 새로운 종교로 간주되었기에 황제숭배라는 충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거부는 곧 박해로 이어졌다.¹¹⁾ 황제를 예배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통치자들을 분노하게 했다. 2세기 초반의 비티니아 총독 플리니는 그들을 권력에 굽힐 줄 모르는 완고한 집단으로 취급하였다.¹²⁾

9) Joseph H. Lynch, *Early Christianity: A Brief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79.

10) Lynch, *Early Christianity*, 82.

11) Gonzalez, 『초대교회사』, 62;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63-64.

12) Pliny, Epistle, 10.96.3, J. Stevenson(ed.), *A New Eusebius: Documents Illustrating the History of the Church to AD 337*, rev. by W. H. C. Frend (Grand Rapids: Baker Academic,

로마의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기독교 자체에 대한 오해와 악의적인 소문들로 인해 그들은 핍박을 받았다. 황제숭배와 로마의 전통 신들을 부정한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로 취급되었다.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조상들의 신들은 모두 가짜가 되었다. 그 당시 종교는 모든 공적, 사적인 삶의 영역과 관련이 있었기에 자연적 재해나 전쟁 등은 기독교인들이 조상의 신들을 버린 결과를 받는 벌로 생각되었다.¹³⁾ 터툴리안은 대중들의 이러한 인식을 제시한다.

그들은(이교도들) 기독교인들이 모든 재난과 고통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티베르 강(Tiber)의 수위가 성벽만큼 높아지면, 나일 강(Nile)이 주변으로 물을 보내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으면, 지진이 있으면, 기근 혹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그 즉시 “기독교인들을 사자들에게 던져라”고 외칩니다.¹⁴⁾

기독교인들은 황제숭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로 군인이나 공직을 거부했다. 연극관람이나 검투사의 혈투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취급되었다.¹⁵⁾ 그리고 기독교 예배를 둘러싼 잘못된 소문이 있었다. 남녀들의 모임, 거룩한 입맞춤 등은 기독교 공동체가 근친상간 혹은 집단 성교를 일삼는 것으로, 성찬식은 식인의식으로 오해되었다.¹⁶⁾ 2세기의 유명한 수사학자이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스승이었던 프론토(Fronto, c.100-c.166 C.E.)는 기독교를 매우 저급한 집단으로 묘사하는데 이는 기독교에 대한 당시 엘리트들의

2013), 21.

13) Lynch, *Early Christianity*, 81;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62.

14) Tertullian, *Apology*, 40.2, Lynch, *Early Christianity*, 81에서 재인용.

15)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62.

16) Lynch, *Early Christianity*, 81.

인식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

밀가루로 입힌 아기가 어떤 사람 앞에 놓여있다. 이 아기는 어린 소년에 의해 살해 되었다. 그들은 끔찍하게도 갈증을 해결하듯이 그 피를 빨아 먹는다. 또한 팔, 다리를 자른다. 이 희생으로 그들은 함께 서약한다. 이러한 악을 알기에 그들은 서로 침묵하기로 서약한다. 어느 거룩한 날 그들은 자녀들, 여동생들과 누나들, 어머니들, 그리고 모든 남녀노소와 함께 모인다. 큰 축제 이후 교제가 깊어지면 슬취한 그들은 서로에 대한 근친상간의 뜨거운 성욕을 느낀다. 이것은 마치 등불 지지대에 매인 개가 작은 음식에 흥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리고 등불이 없어져 꺼져 어두워지면 역겨운 성욕이 그들을 지배한다.¹⁷⁾

이러한 혐오와 오해는 기독교인들이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이교 지식인들의 기독교 폄하와 지적인 공격은 훨씬 논박하기 힘들었다. 로마의 역사가 플리니우스(111년), 타키투스(Cornelius Tacitus, c.55-117 C.E., 115년), 수에토니우스(122년) 등은 기독교를 대중들의 정신을 혼란하게 만드는 새로운 타락한 미신(*superstitio nove et prava*)으로 왜곡시켰다. 소피스트인 사모사타의 루시안(Lucians of Samosada)은 180년경에 저술한 『페레그리누스의 죽음』(*De Morte Peregrini*)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을 꺼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했다. 신플라톤주의 철학자 포르피리우스(Porphyrus)는 15권의 책을 저술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했는데 거기서 그는 구약과 신약은 서로 모순되고 예수는 거짓말쟁이이며 사도들 사이에는 분쟁이 심했다고 기록했다.¹⁸⁾

17) Fronto, quoted by Minucius Felix, *Octavius* 9, Lynch, *Early Christianity*, 82에서 재인용.
18)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240-41.

철학자들은 기독교는 그리스 철학에 비해 훨씬 열등한 종교라고 비웃었다.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의 최고의 스승도 그리스 철학자들의 수준에 올라온 적이 없는 원시적인 수준을 가졌다는 것이다. 또한 기독교는 내적인 모순이 가득한 형편없는 종교적 체계였다.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모든 피조물 위에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인간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보살필 수 있는가? 만일 제국의 신들이 우상이라면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거부할 필요가 있는가? 이교도들의 우상이 정말 거짓 신이라면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멀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¹⁹⁾ 기독교를 맹렬히 비난한 이교 철학자 켈수스(Celsus)는 기독교에 대한 이교인들의 공격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178년에 작성된 『참된 말씀』(*The True Word*)은 기독교인들을 교양 없는 무식한 인간으로 매도한다.²⁰⁾

개인 가정에는 양털과 옷을 가지고 일하는 자들, 그리고 돌팔이들, 즉 무식하고 교양 없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가장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도 기회만 있으면 어린아이들과 무지한 여인들에게 황당한 이야기를 한다. . . . 따라서 네가 진리를 알기 원한다면 스승들과 아버지를 떠나서 여인들과 아이들을 따라 여자들이 모이는 곳이나 돌팔이 장사치의 가게나 무두질장이에게 가라. 거기서 완전한 생활의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을 따르는 자들을 기만하는 방법이다.²¹⁾

켈수스는 예수가 로마의 병사와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라고 주장한다. 만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모든 적들을 죽이지 않고 십자가에

19) Gonzalez, 『초대교회사』, 90-91.

20)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240.

21) Origen, *Against Celsus* 3.55, Gonzalez, 『초대교회사』, 90에서 재인용.

서 죽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다.²²⁾ 이어서 그는 이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해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점들이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방문한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을까? 그렇다면 그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못하단 말인가? 그렇지도 않다면 그가 아시기는 하지만 직접 내려오시기 전에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행을 처리하실 수 없기 때문이었을까?²³⁾

켈수스는 최후의 부활은 어리석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인간이 부활한다면 불에 타거나 짐승 또는 물고기 등에게 먹혀 버린 시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각 시체의 조각조각을 찾으러 온 세상을 헤멜 것인가? 하나의 시신보다 더 많은 시신들에 속했던 신체의 부분들의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 번째 속했던 자에게 줄 것인가? 나중에 소유했던 자들에게는 부활한 몸에 다 채워지지 않은 구멍이 남을 것인가?”²⁴⁾ 변증가들은 유대주의자들과 그리스-로마인들의 공격과 비방에 답해야 했다.

2.2.2. 네로 시대: 64년, 로마

1세기 제국에 의한 박해기록이 많이 없다는 점에서 로마의 박해를 대표적인 예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는 네로 시대(Nero, 54-68, C.E.)부터 시작되었다. 네로는 주후 54년 10월에 로마 황제가 되었다. 재위 초반에는 좋은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보였지만 곧 권력을 남용하고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10년 후 네로는 사람들로 부터 신망을 잃었고

급기야 미쳤다는 소문도 퍼졌다. 주후 64년 6월 18일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했다. 키르쿠스 막시무스(Circus Maximus)에서 시작된 화재는 일주일 간 지속되었고 도시의 14구역 중에 10구역이 소실되었다. 화재의 원인을 둘러싸고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즉, 네로가 로마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을 질렀다는 것이다. 또한 그가 시적인 영감을 얻기 위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배우처럼 분장하고 궁정의 침탑 위에서 칠현금을 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네로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화재를 면한 두 구역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화재의 혐의를 씌우고 탄압하기 시작했다.²⁵⁾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115-117년경에 쓴 것으로 보이는 『연대기』(Annals)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인간적인 노력들, 황제의 모든 화려한 선물들, 그리고 신에 대한 제사들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화재를 명령했다는 해로운 신념은 없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 소문을 없애기 위해 네로는 혐오스러운 행위로 인해 증오를 받고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가장 극심한 고문을 가했다. 그들의 이름이 기원한 그리스도(Christus)는 디베리우스(Tiberius) 황제 때에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Pontus Pilatus)에 의해 극형을 받았다. 이 미신은 한동안 주춤했으나 곧 그 악의 발원지인 유대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흉측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모여서 유명해지는 로마에도 다시 등장했다. 그리하여 스스로 기독교인임을 고백한 자들이 우선 체포되었고 그들의 증언에 의하여 엄청난 수의 신자들이 정죄되었다. 그 이유는 화재 자체 때문이라기보다 그들이 인류를 증오한다는 혐의 때문이었다.²⁶⁾

22) Gonzalez, 『초대교회사』, 91.

23) Origen, *Against Celsus* 4.3, Gonzalez, 『초대교회사』, 92에서 재인용.

24) Gonzalez, 『초대교회사』, 92.

25) Gonzalez, 『초대교회사』, 63-64;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64.

26) Tacitus, *Annals*, 15.44.2-5, J. Stevenson, *A New Eusebius*, 2-3에서 재인용.

타키투스는 네로가 방화의 혐의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당시에 혐오를 받고 있던 집단이었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당시 로마인에게는 미신이며 혐오의 대상이었다. 수에토니우스 역시 네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미신에 빠진 자들(a new and wicked superstition)로 취급되었음을 밝힌다.²⁷⁾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당시의 극장, 군대, 운동경기와 같은 모든 사회활동들이 이교의 우상숭배와 관계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것이 이교도들에게 반발감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²⁸⁾ 이러한 대중의 혐오감을 이용하여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그의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이유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그들은 처음에는 방화로 체포되었지만 나중에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proper nomen ipsum*, 벤전 4:16) 박해를 받았다.

타키투스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극형이 내려졌다. 이 당시의 처벌은 매우 잔인했고 또한 일종의 놀이거리로 제공되었다. 신자들은 털옷에 덮여 개들에 의해 찢겨 죽기도 했고 십자가 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어떤 사람들은 밤에 등불로 태워졌다. 네로는 사람들이 박해장면을 보도록 자신의 정원을 개방하고 원형극장에서 쇼도 주관하였다. 심지어 그는 전차를 직접 몰기도 하고 전차병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온갖 조소들과 놀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 네로 시대의 박해는 로마에 국한된 것 같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처형당한 것 같다.²⁹⁾ 베드로와 바울이 네로 시대에 순교를 당했다고 알려졌다. 주후 68년 네로의 죽음으로 박해는 중지되었고 기독교인들은 잠시 동안 평화를 누렸다.

27) Suetonius, *Life of Nero*, 16.2, J. Stevenson, *A New Eusebius*, 4.

28) Gonzalez, 『초대교회사』, 66.

29) Tacitus, *Annals*, 15.44.2-5, J. Stevenson, *A New Eusebius*, 2-3.

2.2.3. 도미티안 시대: 96년, 로마와 소아시아

네로의 죽음 이후 네 황제의 해(69년)를 거쳐 베스파시안(Vespasian, 69-79, C.E.)과 그의 아들 티투스(Titus, 79-81, C.E.)가 황제로 등극하였다. 이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지 않았지만 티투스의 뒤를 이은 도미티안(Domitian, 81-96, C.E.)에 의해 핍박은 다시 시작되었다. 이 박해는 그의 통치 말에 시도되었다. 도미티안은 로마의 전통을 존경하고 그것을 복원하려고 했다. 아마도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전통과 신을 거부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것 같다. 유대인들도 박해를 피하지 못했다. 도미티안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보내던 헌금을 황제에게 바치도록 명령했고 이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처벌했다. 로마 당국자들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지 못해서 유대풍습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박해했다.³⁰⁾

도미티안 시대의 박해는 로마와 소아시아에 국한되어 있다. 로마에서는 황제와 사촌이었던 플라비우스 클레멘스(Flavius Clemens)가 무신론(atheism)이라는 죄목으로 처형되었다. 기독교인들은 보이지 않은 신을 섬겼기 때문에 무신론자로 오해되었다. 그의 아내 플라비아 도미틸라(Flavius Domitilla)는 이탈리아의 판다테리아(Pandateria)로 추방되었다. 플라비우스와 그의 아내는 아마도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관습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재산을 몰수 당하거나 사형당했다. 트라야의 총독 아킬리우스 그라브리오(Acilius Glabrio) 역시 같은 죄목으로 처형되었다.³¹⁾ 『클레멘스의 첫째 편지』는 로마에서 박해가 지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아시아에서의 박해로 인해 밧모 섬에 유배 중이었던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저술하였다. 도미티안의 박해로 인해 소아시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다. 계시록은 로마를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30) Gonzalez, 『초대교회사』, 67-68.

31) Dio Cassius, *Epitome*, 67.14, J. Stevenson, *A New Eusebius*, 7.

.. 큰 음녀라고 일컫는다.³²⁾

도미티안 통치의 끝에 박해가 시작되어 다행히 박해는 길지 않았다. 그는 네로와 같이 폭군으로 간주되었고 음모에 의해 암살당했다. 로마 원로원은 모든 기록에서 그의 이름을 지워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게 했다. 도미티안 사후 기독교인들은 잠시 동안 평화를 누렸다.³³⁾

2.2.4. 플리니와 트라야니 주고 받은 서신: 111년, 소아시아 (비티니아)

1세기와는 달리 2세기의 박해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록들이 남아있다. 대표적인 문헌은 『순교자 행전』(Acts of the Martyrs), 『로마에 보낸 이그나티우스의 편지』, 『폴리캡의 순교록』, 『리용과 비엔느의 교회가 보내는 편지』 등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2세기의 박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플리니(Pliny the Younger)와 트라야니 사이의 편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플리니는 트라야니 황제(Trajan, 98-117)의 총애를 받아 주후 111년에 오늘날 터키의 북부 해안에 위치한 비티니아(Bithynia) 총독이 되어 2년 동안 그곳을 다스렸다. 그는 이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이교의 신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로마의 법과 문화를 존중하는 그는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³⁴⁾ 플리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심문하였다. 그리스도인인지 묻고 “예”라고 답할 경우, 형벌을 말하고 두 번 더 물었다. 끝까지 저항하는 자들은 고집과 오만함의 이유로 처형당했다.³⁵⁾

어떤 사람이 플리니에게 그리스도인의 명단을 주었는데 그 수가 많았다. 여기서 그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가 명단에 적힌 사람들을 심문을 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그들은 로마의 신들에게 기도하고 황제의 상 앞에 분향하며 그리스도를 저주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미 신앙을 버렸다고 말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플리니는 기독교인들의 죄목을 알아내려고 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그들에게서 심각한 범죄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동이 트기 전에 함께 모여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절도와 간음과 같은 부도덕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정도였다. 과거에는 공동 식사를 위해 모이기도 했지만 로마 당국이 비밀 집회를 금한 이후에는 이 모임조차 하지 않았다.³⁶⁾ 플리니는 이러한 상황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고 이것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황제에게 서신을 보냈다.

황제 폐하께! 저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당신에게 어쭙는 것이 저의 습관입니다. 저의 우유부단과 무지를 보다 잘 지적해주시고 정정해주실 이가 폐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재판에 참여해 본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전례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나이가 많은 자와 젊은 자들에 대해 차별을 두어야 하는지도 잘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신앙을 그들이 포기했을 때, 그 죄를 사면해야 하는 것인지, 일단 기독교 신자였던 자들을 그 후 신앙을 포기해도 아무런 소송없이 처벌을 해야 되는지 아무 것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임을 표명하는 그 자체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함께 수반되는 범죄 사실이 있을 때 처벌을 해야 되는지요?³⁷⁾

32) Gonzalez, 『초대교회사』, 69-70.

33) Gonzalez, 『초대교회사』, 70.

34) Gonzalez, 『초대교회사』, 71.

35) Pliny, *Epistle*, 10.96.1-3, J. Stevenson, *A New Eusebius*, 20-21.

36) Pliny, *Epistle*, 10.96.5-8, J. Stevenson, *A New Eusebius*, 21.

37) Pliny, *Epistle*, 10.96.1-2, J. Stevenson, *A New Eusebius*, 20에서 재인용, 번역은 이상규,

이에 대해 트라야는 기독교인들을 처벌하기 위한 일반적인 규칙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그들의 혐의를 볼 때 국가의 시간과 힘을 투자할 만큼의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한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일부러 색출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단지 고발된 자들을 대상으로 만일 그들이 로마의 신들과 황제 숭배를 거절 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유죄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트라야는 또한 익명의 신고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말라고 권고한다:

나의 친애하는 세쿰두스여, 그대는 기독교라는 혐의로 당신에게 고소를 받은 자들의 문제를 처리하는데, 올바른 과정을 밟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이들의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지를 한 마디로 일반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곤란합니다. 일부러 이들을 속속들이 찾아 색출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만약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부정하고 이에 대한 근거로서 우리들의 신들의 이름을 불러 찬양한다면 이를 통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 그 자에 대해 어떤 의심이 있었는지 상관없이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받은 바, 발신인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은 익명의 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며, 우리들이 사는 시대를 잘 알지 못하는 야만적인 행위입니다.³⁸⁾

트라야의 답장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의 처리문제에 대한 로마의 법령이 없었던 것 같다. 터툴리안(Tertullian)은 로마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292-93 참고.

38) Pliny, Epistle, 10.97.1-2, J. Stevenson, *A New Eusebius*, 23에서 재인용, 번역은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296 참고.

다. 그는 로마가 기독교인들의 무죄함을 알면서도 처벌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변증가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당국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도 공정하게 조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마의 정책은 얼마나 일관성 없는 것인가? 로마법은 기독교인들이 무죄한 줄 알기에 일부러 색출해 내지 않는 동시에 이들을 유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려 한다. 이는 용서하지만 한편으로는 잔인한 조치이다. 이들은 기독교 신자들을 무시하면서도 처벌하려 한다. 왜 이처럼 일관성이 없는가? 당신들이 정죄한다면 왜 수사하지 않는가? 또 수사하지 않는다면 왜 무죄임을 선포하지 않는가?³⁹⁾

트라야의 서신으로 인해 2세기, 그리고 3세기 일부에 이르기까지 제국 전역에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지는 않았지만 고발로 인해 당국에 소환되었을 때에는 그들을 처벌한다는 것이 로마의 공식적인 정책이 되었다.⁴⁰⁾

2.2.5.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c. 107-110년, 안디옥

로마의 박해로 인해 순교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터툴리안은 순교자들의 피는 기독교의 씨앗이라고 언급한다(*semen est sanguis christianorum*).⁴¹⁾ ‘순교자’를 뜻하는 헬리어 ‘*μάρτυς*’는 본래 신약성경에서는 ‘증인,’ 곧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던 자들을 뜻했다. 그러다가 2세기 중 후반에 저술된 『폴리갑의 순교기』(*Martyrdom of Polycarp*)에서 ‘순교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순교자는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고백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신자들을

39) Tertullian, *Apology*, 1.2, Gonzalez, 『초대교회사』, 74에서 재인용.

40) Gonzalez, 『초대교회사』, 75.

41) Tertullian, *Apology*, 50,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37에서 재인용.

지시하는 말이다. 박해가 끝난 3세기 이후로 순교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되어 기독교적인 삶, 즉 청빈, 순종, 정절 등 세상과 구별된 삶을 지칭했다. 학자들은 순교자의 수가 약 천명 이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⁴²⁾

1-2세기 순교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Ignatius of Antioch, c.30-110 C.E.)이다. 그는 주후 30년 혹은 35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교도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출생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그나티우스의 생애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다. 비잔틴의 한 성인전(hagiography)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본보기로 세운 아이(마 18:2)이 이그나티우스였다고 말하기도 하고 제롬(Jerome, c.347-420)은 그가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고 주장한다. 그는 베드로의 두 번째 후계자로 시리아에 위치한 안디옥의 주교(bishop)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트라야노로 인해 발생한 박해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고 로마로 압송되었다(107년). 이 때 그의 나이가 70살이 넘었다.⁴³⁾ 이그나티우스를 누가 고발했는지, 죄명이 무엇이었는지, 체포와 재판 과정은 확실하지 않다. 그의 편지를 보면 안디옥 교회 내에 몇 개의 분파들이 있었고 이들 중에서 한 분파 혹은 이교도들이 그를 고소했을 수도 있다.⁴⁴⁾ 폴리카프(Polycarp), 오리젠(Origen), 유세비우스(Eusebius)에 따르면 이그나티우스는 로마로 호송되어 거기서 110년경에 순교하였다. 최근에 학자들은 이그나티우스의 로마 압송과 순교시기를 105년에서 135년으로 추정한다. 또한 그의 고소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난 논쟁 혹은 대역죄(*crimen laesae maiestatis*) 때문이라고 주장한다.⁴⁵⁾

호송 중에 이그나티우스는 소아시아 지방을 통과하면서 그 지역 신자들의 방문을 받았다. 그는 2세기 초의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다.

42)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39-49, 352-54.

43) Hubertus R. Drobner, *Lehrbuch der Patrologie*, 하성수 역, 『교부학』 (서울: 분도출판사, 2001), 119-20.

44) Gonzalez, 『초대교회사』, 76.

45) Drobner, 『교부학』, 120-21.

이 과정에서 일곱 개의 편지가 작성되었다. 마그네시아(Magnesia)인들에게, 트랄레스(Tralles)인들에게, 에베소인(Ephesian)들에게, 서머나(Smyrna)인들에게, 필라델피아(Philadelphia)인들에게, 로마인들(Romans)에게, 폴리카프에게 보낸 편지.⁴⁶⁾ 이 편지의 개수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⁴⁷⁾ 이그나티우스는 소아시아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킬리키아나 팜필리아까지는 당시의 뱃길에 따라, 그 후는 육로로 압송되었다. 그가 서머나에 머무는 동안 에베소, 마그네시아, 트랄레스의 주교들이 공동체의 대표들과 함께 방문했다.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언급한 오네시모 감독이, 마그네시아에서는 감독과 두 장로들과 집사 한 명이, 트랄레스에서는 폴리비우스 감독이 왔다. 이그나티우스는 이 때 각각의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를 주었고 그리스로 넘어가기 전 드로아에서 필라델피아, 서머나, 그리고 그곳의 주교 폴리카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의 후대에 감사하고 박해가 끝난 안디옥 공동체를 돌보아 줄 것을 부탁했다. 로마인들에 대한 편지는 그가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 로마로 가는 사절 편에 부탁하였다.⁴⁸⁾

이그나티우스는 로마로 호송 중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를 구출하려는 계획에 대해서 듣고 이를 반대하였다. 그는 순교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는커녕 그것을 사모했을까? 현대사회학자들은 순교자들이 고통과 희생을 즐기는 정신병(masochism)에 걸렸거나 심지어 고문을 통해 성적희열을 느꼈기 때문에 오히려 죽기를 원했다는 다소 충격적인 주장을 제시한다.⁴⁹⁾ 그러나 이그나티우스에 있어서 순교는 정신이상이나 왜곡된 성적취향이 아닌 참된 제자의 길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구출 받기 보다는 용감하게 순교의 길을 건너갈 수

46) Gonzalez, 『초대교회사』, 75-77.

47) Drobner, 『교부학』, 119-20.

48) Drobner, 『교부학』, 120; Gonzalez, 『초대교회사』, 77.

49)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52.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제 여러분에게 청합니다. 불필요한 호의를 저에게 베풀지 마십시오. 저를 맹수의 먹이가 되게 놔두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밑이니 맹수의 이빨에 갈려서 그리스도의 깨끗한 빵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맹수들을 유인하여 그들이 저의 무덤이 되게 하십시오. 또한 제가 죽었을 때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도록 맹수들이 제 몸의 어떤 부분도 남기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저의 몸을 볼 수 없게 될 때 저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제가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제물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그리스도께 간구해 주십시오.⁵⁰⁾

2.2.6. 서머나의 폴리갑: c. 155, 서머나

이그나티우스의 순교 반 세기 후에 서머나의 폴리갑(Polycarp of Smyrna, 69-155 C.E.) 역시 같은 일을 당했다. 폴리갑의 생애에 대해서도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이레네우스(Irenaeus)와 터툴리안은 폴리갑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고 말하며 제롬 역시 이에 동의하면서 사도 요한이 폴리갑을 서머나의 주교로 임명했다고 기록한다(Wikipedia). 그곳에서 박해가 일어났고 『폴리갑의 순교기』(Martyrdom of Polycarp)에 따르면 체포된 신자들은 심문과 고문을 받았다. 재판관은 늙은 게르마니쿠스(Germanicus)에게 나이가 많으니 고문을 받지 말고 신앙을 버릴 것을 권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불의한 폭행이 벌어지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자신의 진실성을 입증하

기 위해 짐승들에게 죽어도 좋다고 소리쳤다. 군중들은 분노에 차 “무신론자에게 죽음! 폴리갑을 데려오라”고 외쳤다.⁵¹⁾

폴리갑은 수색 소식을 듣고 공동체의 충고에 따라 도시 밖의 농가로 피신하였고 수색이 계속되자 다시 은신처를 옮겼다. 하지만 어떤 노예가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폴리갑의 은신처를 누설했고 추적자들이 그를 잡으러 왔을 때 그는 체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⁵²⁾ 황제를 두고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석방해 주겠다는 재판관의 말에 폴리갑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으나 그분은 나에게 악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⁵³⁾ 온갖 위협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을 굳건하게 지켰고 결국 화형을 당하게 되었다. 화형이 실패하자 칼에 찔려 순교하였다.⁵⁴⁾

폴리갑의 처형은 서머나의 스타디움에서 전체 시민의 10-20%에 달하는 약 이 만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행되었다. 마침 이 날은 로마의 혈전(Roman blood games)이라고 불리는 행사기간이었다. 이것은 맹수들의 싸움, 검투사들의 결투, 그리고 범죄자 처벌 등으로 진행되었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권력자들과 특권층, 사회의 저명인사들의 교류의 장이었으며 동시에 로마의 권력과 힘을 보여주었다. 폴리갑의 순교는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반 로마적인 미신을 척결하는 법과 정의의 구현이었다.⁵⁵⁾ 이러한 가운데서도 폴리갑은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였다. 순교기는 그 당시에 순교는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선택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졌음을 보여준다.⁵⁶⁾

51) Anonymous Author(s), *Martyrdom of Polycarp*, 3.1, 하성수 역, 『폴리카르푸스: 편지와 순교록』 (서울: 분도출판사, 2000), 133.

52) *Martyrdom of Polycarp*, 4.1-7.1, 하성수 역, 『폴리카르푸스』, 135-41.

53) *Martyrdom of Polycarp*, 8.1-9.1, 하성수 역, 『폴리카르푸스』, 144-49.

54) *Martyrdom of Polycarp*, 10.1-16.2, 하성수 역, 『폴리카르푸스』, 151-73.

55)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68-70.

50) Ignatius, *The Letter to the Romans*, 4.1-2, 박미경 역, 『이냐시오스: 일곱편지』 (서울: 분도출판사, 2000), 87.

2.2.7.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시대: 2세기 중·말

2세기의 기독교 박해와 관련된 로마의 대표적인 황제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이다(Marcus Aurelius, 161-180 C.E.)이다. 주후 161년에 황제로 등극한 그는 이전의 황제와는 달리 지성을 겸비한 인물이었다. 그는 대표적인 스토아 철학자로 후대에 고전으로 남은 『명상록』(Meditations)을 저술하였다. 박해의 원인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아우렐리우스 재위 초기에 침략, 전염병 및 홍수와 같은 자연 재해가 연달아 일어났는데 그 책임이 기독교인들로 인한 로마 신들의 진노로 돌려졌다. 그 역시 또한 고대 로마의 문화와 종교의 부흥을 지지했다.⁵⁷⁾

이 시기의 탄압은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해졌다. 열네 살짜리 소년 폰티쿠스(Ponticus)와 리옹의 감독 포티누스(Pothinus)가 이 때 처형당했다.⁵⁸⁾ 당시의 순교 이야기 중에 과부 펠리시타스(Felicitas)와 일곱 아들의 순교기가 유명하다. 그녀는 과부로서 교회를 위해 모든 시간을 바쳤고 교회는 그녀의 생활을 지원하였다. 이교 사제들은 펠리시타스를 고발하였다. 당국의 회유와 협박에도 그녀가 요동이 없자 총독은 그녀의 아들들을 설득하였다. 그녀는 아들들에게 용기 있게 맞설 것을 말했고 그들은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다. 심문 기록을 받은 황제는 결국 이들을 처형하도록 명령했다. 이 박해 때 순교한 사람들 중에는 순교자 저스틴도 있다(Justin Martyr).⁵⁹⁾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버가모(Pergamum)와 아프리카 지역에도 순교자들이 있었고, 177년 고을 지방에서는 사십팔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 당했다.⁶⁰⁾

56) Gonzalez, 『초대교회사』, 80-81.

57) Gonzalez, 『초대교회사』, 82-83;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70.

58)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70.

59) Gonzalez, 『초대교회사』, 83.

60) Eusebius, H.E. 4.16.7-8,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70-71.

리옹(Lyons)과 비엔느(Vienne)에서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다. 이 곳의 교회가 브리기아와 소아시아의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이 당시의 박해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그곳의 박해는 기독교인들의 공공장소 출입을 금한 것으로 시작되어 거리에서 그들을 추격하고 욕설을 퍼붓고 돌을 던지는 일까지 발전하였다. 일부는 신앙을 부인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신실하게 맞섰다. 쌍투스(Sanctus)라는 소년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러한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고 기독교를 부인했던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순교에 동참하였다. 이러한 기록들은 제국 전체에서 발생한 박해의 일부분만을 기록한 것이다.⁶¹⁾

2.2.8. 2세기 말-3세기 중반

아우렐리우스 사후 황제의 위에 오른 콤모두스(Commodus, 177-192, C.E.) 시대에는 박해를 금지하는 칙령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박해는 잠잠해졌다. 내적으로는 반란과 외적으로는 야만족의 침략으로 인해 황제는 기독교에 대해 관심을 쓸 여유가 없었다.⁶²⁾ 콤모두스의 사후 계속적인 내란으로 인해 이러한 경향은 계속되었다. 2세기 내내 기독교인들은 위기 속에서 살았다. 트라야의 정책으로 인해 그들은 언제든지 고발을 당해 죽임을 당할 수 있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박해가 선한 황제들에 의해서도 행해졌다는 것이다.⁶³⁾

이후 셉티미우스 세베루스(Septimus Severus, 193-211, C.E.)는 국, 내외적인 혼란을 없애기 위해 로마 제국내의 종교를 통일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혼합절충정책을 시행하여 사람들에게 태양을 예배할 것을 명령

61) Gonzalez, 『초대교회사』, 84-85.

62)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371.

63) Gonzalez, 『초대교회사』, 85.

했다(Sol inbictus, 202년). 만일 태양을 신으로 섬긴다면 다른 모든 종교들은 허용되었다. 기독교와 유대교는 반발했는데 황제는 이에 대해 이들 종교의 전파자들과 개종자들을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 세베루스의 명령은 기독교인들을 적극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 이 칙령으로 인해 이레네우스와 오리겐의 아버지가 순교했고 클레멘트는 알렉산드리아를 떠나야 했다.⁶⁴⁾

이 때 순교한 사람들 중에 유명한 인물은 퍼페투아(Perpetua)와 펠리시타스(Felicitas)이다. 『퍼페투아와 펠리시타스의 순교록』에 따르면 총 다섯 명이 순교했다. 퍼페투아는 상류층 여성이었고 나머지 네 명은 그녀를 수종 드는 노예들, 펠리시타스, 레보카투스, 사투르니누스와 세쿤두루스였다. 체포 당시 퍼페투아는 임신 중이었고 여덟 달 후에 딸을 출산했다. 이 여아는 곧 기독교 여성도에게 입양되었다. 이들은 모두 원형경기장에서 죽었다. 사투르니누스와 레보카투스, 세쿤두루스가 먼저 죽었다. 이후 퍼페투아와 펠리시타스는 들소에 받혀 죽었다. 그 가운데서 퍼페투아는 머리를 다시 묶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왜냐하면 머리를 푸는 것은 슬픔과 애도를 뜻하는데 이날은 그녀에게 가장 기쁜 날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박해는 곧 중단 되었다. 이후 카라칼라(Caracalla, 198-217)와 막시민(Masimin, 235-238) 시대에 잠시 핍박이 있었지만 교회는 약 반세기 동안 평화를 누렸다.⁶⁵⁾

3. 나오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초기 사도시대부터 주후 250년까지의 기독교 박해를 대략적으로 설명하였다. 교회는 생성초기부터 유대교와 로마제국의 핍박을 받았다. 약 4세기 초반까지 기독교는 줄곧 외부로부터 생존의 위협을 받았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신학과 신흥종교에 대한 시기심 등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 그들의 핍박보다 더 심각한 것은 로마제국으로부터의 박해이다. 로마는 초반에는 종교관용 정책 아래서 기독교에 관대했지만 이 종교가 유대교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 후에는 로마의 전통 신과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다. 이에 대한 거부는 곧 반역을 의미했기 때문에 유일신을 추구하는 기독교는 박해를 피할 수 없었다. 또한 권력자들은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신자들은 사회의 질서를 깨트리는 집단으로 낙인 찍혔다. 사회의 질서를 깨트리는 집단으로 낙인 찍혔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초대 기독교인들은 혐오와 폭력의 대상이 되었다.

250년 이전까지의 기독교 박해의 법적 근거는 허술하였다. 로마는 때때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과 변론의 기회도 없이 그들을 처벌하였다. 비록 박해가 간헐적으로 계속되었지만 고발 될 경우 심한 경우에는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목숨을 잃기도 했다. 배교하거나 박해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신자들도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고난 앞에서 신앙을 지켰고 이로 인해 순교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교회는 박해 앞에서 폭력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의 주권 회복을 위해 반역과 무력을 정당화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선택지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고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파괴가 아닌 안녕을 위해 존재한다고 변호했다. 또한 로마정부에는 정당한 법 집행을

64) Gonzalez, 『초대교회사』, 148-49.

65) Gonzalez, 『초대교회사』, 149-51.

촉구하였다. 250년까지의 기독교 박해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주된 원인이 있기 보다는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들, 특별히 제국의 폭력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었다. 로마제국이 기독교인들을 정당하게 대했다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박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교회사가 과거 교회의 역사에 대한 객관적인 작업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교훈을 제시하는 학문이라면 초기 기독교의 박해가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⁶⁶⁾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는 교회는 외부의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4세기 초반까지 계속된 박해에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신앙이 더 단단해졌고 마침내 313년에는 기독교 공인이 이루어졌고 381년에는 제국의 국교가 되었다. 학자들이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은 박해가 오히려 교회를 성장하게 했다는 점이다.⁶⁷⁾ 결국 기독교는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그 자체의 내적인 타락에 의해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물론 박해와 잘못된 오해 등에 정당하게 대응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더 많은 노력을 기독교 자체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기울여야 한다.

66) Rowan Williams, *Why Study the Past?: The Quest for the Historical Church*, 양세규 역, 『과거의 의미: 역사적 교회에 관한 신학적 탐구』 (서울: 비아, 2019).

67) 박해와 이단의 위협 속에서 유대교의 한 분파로 시작한 소규모의 예수운동이 어떻게 몇 세기 만에 세계종교가 되었을까?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 Rodney Stark, *The Rise of Christianity: How the Obscure, Marginal Jesus Movement Became the Dominant Religious Force in the Western World in a Few Centuries*, 손현선 역, 『기독교의 발흥: 사회과학자의 시선으로 탐색한 초기 기독교 성장의 요인』 (서울: 좋은씨앗, 2016); id., *The Triumph of Christianity: How the Jesus Movement Became the World's Largest Religion* (New York: Harper One, 2012); Larry W. Hurtado, *Why on Earth Did Anyone Become a Christian in the First Three Centuries?* (Milwaukee: Marquette University Press, 2016); 김덕수, 『로마와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로마를 정복했는가?』 (서울: 흥성사, 2017).

참고문헌

- Bauer, Walter. *Orthodoxy and Heresy in Earliest Christianity*. Trans. Robert A. Kraft and Gerhard Krodel. suppl. Georg Strecker.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 Hurtado, Larry W. *Why on Earth Did Anyone Become a Christian in the First Three Centuries?* Milwaukee: Marquette University Press, 2016.
- Köstenberger, Andreas J. and Michael J. Kruger. *The Heresy of Orthodoxy: How Contemporary Culture's Fascination with Diversity Has Reshaped Our Understanding of Early Christianity*. Wheaton: Crossway, 2010.
- Lynch, Joseph H. *Early Christianity: A Brief Hist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Stark, Rodney. *The Triumph of Christianity: How the Jesus Movement Became the World's Largest Religion*. New York: Harper One, 2012.
- Stevenson(ed.), J. *A New Eusebius: Documents Illustrating the History of the Church to AD 337*. Rev. by W. H. C. Frend.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3.
- Anonymous Author(s). *Martyrdom of Polycarp*. 『폴리카르푸스: 편지와 순교록』. 서울: 분도출판사, 2000.
- Drobnér, Hubertus R. *Lehrbuch der Patrologie*. 하성수 역. 『교부학』. 서울: 분도출판사, 2001.
- Ehrman, Bart D. *Lost Christianities: The Battle for Scripture and the Faiths We Never Know*. 박철현 역. 『잃어버린 기독교의 비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성경과 교리를 둘러싼 숨 막히는 전투』. 서울: 이제, 2008.
- Gonzalez, Justo L. *The Story of Christianity 1: The Early Church to the Dawn of the Reformation*. 2nd ed. 임성욱 역. 『초대교회사』. 서울: 은성출판사,

2012.

Ignatius, *The Letter to the Romans*. 박미경 역. 『이나시오스: 일곱편지』. 서울: 분도출판사, 2000.

McGrath, Alister E. *Heresy: A History of Defending the Truth*. 홍병룡 역. 『그들은 어떻게 이단이 되었는가: 교회가 신앙을 지켜온 치열한 역사』. 서울: 포이에마, 2011.

Pagels, Elaine. *The Gnostic Gospels*. 하연희 역. 『영지주의: 숨겨진 복음서』. 서울: 루비박스, 2006.

_____. *Beyond Belief: The Secret Gospel of Thomas*. 권영주 역. 『믿음을 넘어서: 도마의 비밀 복음서』. 서울: 루비박스, 2006.

Stark, Rodney. *The Rise of Christianity: How the Obscure, Marginal Jesus Movement Became the Dominant Religious Force in the Western World in a Few Centuries*. 손현선 역. 『기독교의 발흥: 사회과학자의 시선으로 탐색한 초기 기독교 성장의 요인』. 서울: 좋은씨앗, 2016.

Williams, Rowan. *Why Study the Past?: The Quest for the Historical Church*. 양세규 역. 『과거의 의미: 역사적 교회에 관한 신학적 탐구』. 서울: 비아, 2019.

김택수. 『로마와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로마를 정복했는가?』. 서울: 홍성사, 2017.

서원모. “유대교의 한 종파에서 세계종교로: 그리스도교와 헬레니즘의 관계 연구”. 『한국교회사학회지』 48 (2017): 211-61.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로마 제국 하에서의 기독교』. 서울: SFC, 2016.

구약학

구약과 생태계: 오경을 중심으로

The Old Testament and Eco-system: focusing on Pentateuch

신득일

고신대 (신학과 교수)



- 1. 서언 | 223
- 2. 본문주석 | 225
 - 2.1. 창조기사 | 225
 - 2.1.1. 옛세 창조 | 225
 - 2.1.2. '문화명령' | 230
 - 2.1.3. 낙원과 생태계 | 232
 - 2.2. 인간의 타락과 생태계 | 234
 - 2.3. 홍수이후 생태보존의 언약 | 236
 - 2.4. 율법과 생태계 | 238
 - 2.4.1. 생태 관련 규정 | 238
 - 2.4.2. 생태 관련 안식년과 희년 규정 | 241
 - 2.4.3. 생태 관련 전쟁규례 | 242
- 3. 결론 | 243